

한국불교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탐색

— 자아초월 —

송 영 속

동국대 불교대학원

〈요 약〉

본 논문은 한국불교의 위기, 또는 한국불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간화선의 위기가 한국불교교육에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한국불교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탐색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본 논문은 한국불교 교육이 변화와 개혁에 직면한 상황에서, 어떻게 수행자들을 교육할 것인가? 또 어떤 인격과 능력을 갖춘 수행자를 길러낼 것인가? 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물음과 그 해답을 찾아보는 데 일차적 목적을 둘 것이다.

또한 본 논문은 출가 수행자 교육뿐만이 아니라 일반불자 교육에 이르기까지 불교교육 전반에 걸쳐서 어떤 인재를 어떻게, 왜 길러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답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둘 것이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본 논문은 ‘불교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떤 인정,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왜 길러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는 방법으로 윌리엄 브로드(William Braud)의 전인적, 자아초월적인 고등교육 체계를 소개하고자 한다.

윌리엄이 자신의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자아초월 교육프로그램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하고 있는 ITP(Institute of Transpersonal Psychology)에서 인간의 종교적 영성적 측면을 객관적 합리적 과학적 방식으로 접근하는 자아초월 심리학의 석·박사 과정에서 도입하고 있는 교육방식이다.

본 논문은 불교가 지향하는 깨달음의 길과 자아초월이 강조하는 영성의 길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자아초월 교육프로그램의 특징, 자아초월 교육의 근본원리와 적용, 자아초월 교육효과의 평가 등을 통해서 대중화와 국제화를 꿈꾸는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불교교육의 측면에서 짚어보았다.

핵심 주제어: 불교교육, 자아초월교육, 전인교육, 영성교육, 한국불교 교육체계

I. 들어가는 말

지난 30년간 한국불교는 이웃 종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위치와 지도력을 잃어 상실했다. 그 결과는 종교적 불평등, 일부 기독교인들의 사찰난입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는데 직접 또는 간접적인 원인으로 제공되었고 이제는 그 수위를 넘어서 사회문제로 발전하고 있다.¹⁾ 위기에 직면한 한국불교는 이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으로 포교의 활성화와 대중화, 수행자의 자질향상과 교육, 수행방법의 체계화 등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되고 개선점을 모색해 왔다. 논의의 핵심은 시대에 맞는 포교와 교육의 주도권을 상실한 한국불교, 특히 한국불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간화선의 위기를 진단하면서 그 원인과 해법을 다양하게 제안하고 있다.²⁾

한편 조계종 교육원에서는 300년 동안 고수해 왔던 한문중심의 서당식 전통강원 교육에서 시대에 맞는 보편적 교육의 커리큘럼과 체계로 개편하는 교과목개편 공청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의 대부분은 우리 불교가 전통에 발목 잡혀서 시대에 맞게 변화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해 온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한문교재의 한글화와 함께 새로운 커리큘럼의 도입으로 종단의 교육제도가 변화하고 개혁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공감했다.³⁾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즉 불교를 교육받은 사람이 어떤 인간으로 성장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법진스님). 무엇을 가르칠까도 중요하지만 교육받는 대상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격외의 모습으로 포장된 이면에는 사회를 잘 알지 못하고 교양에 뒤떨어진 인간들을 양산하고 있지 않나 반성하게 된다(본각스님). 시대가 요구하는 수행자를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에 대한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해월스님). 획일화보다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커리큘럼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지환스님). 즉 이들의 우려는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의문을 남겼다.

엄밀한 의미에서 교육은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에 앞서 왜 교육이 필요한지, 즉 교육의 목적에 대한 질문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다음 그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 순서다. 다시 말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행위를 놓고, 적어도 6하 원칙에 맞추어서 최소한의 합리적인 대답과 논의가 가능할 때, 보다 효과적인 교육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누가(피교육자의 조건, 수준과 관련해서 교육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문제), 무엇을(교육내용과 관련), 왜 (교육목표와 관련), 어떻게(교육방식과 관련), 언제(시대적 상황, 조건과 관련), 어디서(교육공간과 관련). 우리는 이와 같

1)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858835 참고.

2) 〈간화선대중화, 동적수행병행을〉, 《불교신문》 2569호, 2009년 10월 28일자 참고, <http://www.ibulgyo.com/archive2007/200910/200910241256378408.asp>.

3) 조계종 교육원 교과목개편공청회, 2010. <http://www.mediabudha.net/detail.php?number=5579>.

은 6가지 주제와 관련된 문제들이 충분히 고려될 때 교육은 그만큼 질적이고, 실용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무엇을’ 가리킬 것인가에 해당하는 커리큘럼은 교육의 목적과 관계된 ‘왜’에 대한 물음과 교육방식과 관련된 ‘어떻게’라는 질문에 명료하게 답할 수 없다면 제대로 된 커리큘럼은 만들어질 수 없으며 설사 우수한 커리큘럼이 있다고 해도 그 효용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최근 30년 동안에 불교와 기독교의 비율이 30 : 70으로 바뀐 상황을 보면 앞으로 30년 뒤에는 불교가 없어지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지적과 함께 부처님의 해명을 이어가는 것은 한 사람의 깨달은 자가 아니라 불자가 많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⁴⁾ 이렇듯 한국불교의 위기, 간화선의 위기는 이제 변화나 개혁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실제 변화하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이다. 즉, 한국불교가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우리시대의 필요이고 요구사항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선택과 당위성 사이를 구분해야 한다. 선택은 그야말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당위성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윤리와 도덕에 속한다. 하지 않으면 도덕에 어긋나고 윤리에 위배된다는 뜻이다. 도덕과 윤리라는 말 대신에 계율이라는 불교적 용어를 사용해서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지금의 한국불교, 간화선은 변화하지 않으면 계율에 위배된다는 뜻이 된다. 왜냐하면 불교의 계율은 시간과 공간의 이치에 바탕을 둔 연기법을 실천하는데 장애가 되거나 방해되는 행위를 방지하는데 그 일차적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보다 적극적인 목적은 연기적 삶, 즉 자아의 틀에서 벗어나 사회와 환경조건에 맞추어 조화롭게 변화함으로서 유익한 삶, 존재로 성장하고 발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일조하는 데 필요한 행위를 하도록 돕는 것이 계율의 진정한 의미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한국불교 교육의 위기, 변화와 개혁에 직면한 상황에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또 어떤 인격과 능력을 갖춘 수행자를 길러낼 것인가? 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물음과 그 해답을 찾아보는데 일차적 목적을 둘 것이다. 또 출가 수행자교육뿐만 아니라 일반불자 교육에 이르기까지 불교교육 전반에 걸쳐서 어떤 인재를 어떻게, 왜 길러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답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둘 것이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본 논문은 ‘불교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떤 인성,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왜 길러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는 방법으로 윌리엄 브로드(William Braud)의 전인적, 자아초월적인 고등교육 체계를 소개하고자 한다.

윌리엄이 자신의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자아초월 교육프로그램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하고 있는 자아초월 심리학 연구소 (ITP: Institute of Transpersonal

4) 윤창화, 같은 글.

Psychology)에서 인간의 종교적 영성적 측면을 객관적 합리적 과학적 방식으로 접근하는 자아초월 심리학의 석·박사 과정에서 도입하고 있는 교육방식이다. 그곳에서 자아초월 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오늘날 우리 불교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와 문제해결에 대안적 아이디어와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II. ITP 교육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이유

앞에서 이미 밝혔듯이 ITP는 자아초월 심리학의 이상, 가치, 목적을 실현, 실천하기 위해서 설립된 석·박사 프로그램이다. 자아초월 심리학은 인간발달의 전 영역이 심리학의 연구주제로 관심을 받고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아초월 심리학은 기존의 심리학들이 - 정신분석, 행동주의, 인본주의 - 인간의 영적발달을 심리학의 연구주제에서 제외시킨 사실에 반발하고 인간의 영성(spirituality)적 측면을 심리학의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즉 전통심리학은 정신적, 정서적 병에서부터 정상적이고 건강한 행동에 이르는 두 극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수준의 인간경험, 정상과 비정상, 부적응적인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자아초월 심리학은 그러한 전통심리학의 주제들에 더해서 깊은 종교적, 신비적, 비이원적 의식상태의 본질과 의미들, 그와 관련된 특별한 인간경험, 존재의 진정한 실재에 대한 경험과 같이 내적이고 초월적인 인간경험의 차원들을 심리학의 연구 영역에 포함시켰다. 또 어떻게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지를 학문적으로 진지하게 연구해 왔다.

따라서 ITP 교육프로그램은 기존의 심리학과는 달리 비이원적이고 초월적인 인간경험을 학문적으로 진지하게 연구하기 위해서 전체적, 포괄적, 통합적 접근방식을 취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계속적 성장, 발달, 인격적 변화를 강조하고 그런 정신적, 영성적 성장을 가치있게 여긴다. ITP는 논리와 분석, 지적능력에 바탕을 둔 기존의 학교교육에서 얻어지는 것 이상의 직관, 통찰, 지혜에 근거해서 아는 방식, 존재방식, 행동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는다. 또 자아와 세계관에 대해서도 지금껏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의 초월적 세계, 비이원적 영적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⁵⁾

본 연구가 ITP 교육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ITP의 교육목적이 우리 불교교육이 지향하는 근본적 목적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즉 ITP는 논리와 분석, 지적능력에 더해서 인간의 직관과 통찰이 상식적 앎의 세계를 넘어선 진정한

5) Braud William, "Educating the "More" in Holistic Transpersonal Higher Education: A 30+ Year Perspective on the Approach of the Institute of Transpersonal Psychology", *The Journal of Transpersonal Psychology*, Vol. 38, No. 2, 2006. p.3.

실재, 진리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수단임을 알고 직관과 통찰능력, 지혜를 배양하도록 학생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해서 ITP는 종교적, 비이원적 의식 상태와 같은 자아초월적인 인간경험을 과학적, 합리적, 실용적 방식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불교수행에서 오는 여러 가지 초자아적 경험, 일원적 경험을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필요한 객관적인 연구방법론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ITP의 자아초월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는 현재 한국불교가 당면하고 있는 교육체계의 현대화, 개선화 방안에 대안적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ITP 교육체계는 한국불교가 당면하고 있는 포교의 활성화, 간화선의 대중화, 간화선수행의 교육체계화 등을 위해서 하나의 모델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Ⅲ. 깨달음과 영성

ITP의 교육프로그램을 소개하기에 앞서 자아초월 심리학의 중요한 주제인 영성과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대다수의 불자들이 ‘깨달음’은 불교적 용어인데 반해서 ‘영성’은 기독교적 용어라고 생각하고 다소 어색하고 생소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영성이라는 말이 기독교 전통의 서양문화에서 왔고 자연히 기독교인들이 주로 사용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영성(spirituality)’이라는 말은 기독교에 국한된 용어가 아니다. 영성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영성은 궁극적, 비물질적 실재, 개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궁극적 비물질적 존재의 본질을 발견하도록 돕는 내적인 길이다. 또한 영성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장 심층의 가치들, 의미들이다. 명상, 기도, 묵상을 포함하는 영성수행은 개인의 내적 삶을 발달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그러한 수행은 흔히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포괄적인 자아에 순응하거나 자연, 우주, 또는 보다 신성한 영역과 연합된 인간사회에 순응함으로써 보다 큰 실재와 연결되는 경험으로 유도한다. 영성은 흔히 영감, 삶의 방향의 원천으로 경험되어진다. 영성은 비물질적 실재에 대한 믿음이나 내재적이고 초월적 세계의 본질에 대한 경험을 포함한다.⁶⁾

위의 정의를 보면 비록 영성이라는 단어가 다소 생소하기는 하지만 깨달음을 향해 가는 불교인들의 길과 별반 어긋남이 없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종교적’이라는 말이 ‘영성적’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도 사용되어진다.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가 1902년에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⁷⁾에 대한 강의를 했었는데 지금

6) <http://en.wikipedia.org/wiki/Spirituality> 참고.

7) James, William,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5) (Original work published 1902).

은 종교적이라는 말 대신 “영성적 경험의 다양성”이라고 부를 만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나 달라이 라마는 출판 당시 3개월이 넘도록 뉴욕 타임지의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들어갈 만큼 대중적인 관심을 받았던, 뉴밀레니엄 시대에 필요한 윤리를 설명한 그의 저서에서 종교와 영성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설명했다.

나는 종교는 각기 다른 전통에서 구원을 주장하는 믿음과 관련되어 있고 그러한 믿음은 천국이나 열반과 같은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형이상학적 또는 초자연적 실체의 형태를 수용하는 측면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도그마, 의식, 기도 등은 그와 같은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 한편 영성은 어떤 인간 정신의 특질들 즉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사랑과 자비, 인내, 인욕, 용서, 만족, 책임감, 조화로움 감각과 같은 특질들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열반이나 구원을 향한 의식과 기도는 종교적 믿음과 직결되어 있지만 이와 같은 인간 정신의 특질들이 반드시 종교적 믿음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⁸⁾

달라이 라마는 영성과 종교를 구분 짓는 핵심적 요소로 진정성/순수성과 타자의 웰빙에 대한 관심,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그는 종교적 믿음은 영적 수행을 요구하지만 영적 수행에 반드시 종교적 믿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종교와 영성에 대한 달라이 라마의 견해를 단순히 공식적으로 정의해 보면, ‘영성=타자의 웰빙에 대한 진정성×종교’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외에도 일찍이 많은 학자들이 영성의 개념을 보다 포괄적이고 정확하게 정의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세계에는 무수한 종교적, 영성적 전통이 존재하는 만큼 그 각각을 함축해서 정의하기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다. 어쨌든 우리는 영성에 대한 몇 가지 대표적인 정의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불교의 깨달음과 영성의 간극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야만 깨달음의 길, 열반, 성불의 길을 목표로 하는 불교교육이 영성발달과 체험을 중시하는 ITP 교육프로그램을 하나의 모델로 삼을 수 있는 타당성이 보다 분명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ITP의 자아초월 교육을 소개하고 있는 윌리엄 브로드(William Braud)는 영성이라는 말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궁극적 가치들, 최상의 궁극적 실재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켄 윌버(Ken Wilber)는 영성을 거대한 존재의 등지에서 최고 수준의 존재, 삶이라고 정의하고 다음의 5가지 종류를 제안했다: 첫째, 영성은 인지적, 도덕적, 대인 관계적, 정의적 측면을 포함해서 대략 12가지 측면을 제공하고, 발달선상에서 최고 높은 수준과 관련되어 있다. 둘째, 영성은 발달계보들 가운데 최상위 수준들의 전체 합이다. 셋째, 영성은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된 발달계보다. 넷째, 영성은 어떤 단계에서도 가능한 개방성, 사랑과 같은 일종의 태도다. 다섯째, 영성은 기본적으로 단계가 아니라 절정의 경험

8) Dalai Lama, *Ethics for the New Millennium* (New York: Riverhead Books, 1999), p. 22.

과 관계되어 있다.⁹⁾

한편 존 화이트(John White)는 영성을 아주 다방면에서 통합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영성은 물리적 용어로는 물질의 신비 이면에 있는 물질의 기적적인 속성과 창조적인 기원을 인식하는 것이다; 생물학적 용어로는 모든 생명체의 변화 이면에 놓인 어떤 신성한 지성을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모든 존재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완벽하게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보다 큰 전체로 진화시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심리학적 용어로는 스스로의 내면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의미와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다; 사회적 용어로는 인종, 소의경전, 피부색, 성별, 지위,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이들에게 무아로 봉사하는 것이다; 생태학적 용어로는 광물, 식물, 동물, 인간, 영혼 등과 같이 일체의 생명체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주적 용어로는 우주, 바꾸어서 말하면 무한과 하나가 되어 도(道)와 함께 흐르는 것이다; 종교적 용어로는 일체의 것, 모든 사건들, 모든 상황으로부터 법신을¹⁰⁾ 보는 것, 무한한 빛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머무는 것, 법신 안에 있는 일체의 것들, 사건들, 상황들을 우주가 일어나는 무한의 대양, 또는 매트릭스로 보는 것이다.¹¹⁾

위에서 존 화이트가 말하고 있는 영성에 대한 정의들을 보면 마치 대승불교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인간상, 보살의 특징, 능력을 묘사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 든다. 비록 그는 법신이라는 말 대신에 신(God)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그 자리에 법신, 부처, 공성 등을 대신 넣는다고 해도 그 본질적 의미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영성의 길은 바로 보살의 길과 상통한다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달라이 라마가 종교와 영성의 차이를 결정짓는 요소로 타자의 웰빙에 대한 진정성을 지적했던 부분을 상기하면 좀 더 받아들이기 쉬울 것이라 여겨진다. 비록 서로 다른 믿음이나 절대자, 절대세계가 있다고 해도 만일 타인의 행복을 돕고자 하는 진실한 열망과 노력이 있다면 영성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다양한 종교적 믿음과 신념의 벽을 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ITP의 자아초월 교육은 바로 다양한 종교적 믿음과 전통들을 타자의 행복과 웰빙에 관심을 두는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하고자 하며 이를 실현하고자 과학적, 합리적, 실용적, 보편적 교육방법론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므로 ITP의 교육방법은 한국불교가 추구하는 보살의 체험과 능력, 발달을 중시하고 보살의 길을 구현하려는 교육의 체계화에 유익한 방법론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ITP의 자아초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는 한국불교의 전통강원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불교대학과 교양대학의 향상과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¹²⁾

9) Wilber, Ken, “Spirituality and developmental lines: Are there stages?”, *Journal of Transpersonal Psychology*, 31, 1999, pp. 1-4.

10) 원문에는 신(God)로 표현되어 있지만 글의 의도에 맞추어 법신으로 바꾸었음.

11) White, John, *The meeting of science and spirit* (New York: Paragon House, 1990), pp. 239-240.

12) 윌리엄 브로드 자신이 ITP 자아초월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이유가 지나치게 지식을 추구하고 전인적 교육보다는 정보수집과 인지능력에 치중된 현대의 교육기관들이 인간의 궁극적 행복과 웰빙을 위해서 전인적 교육, 영성교육을 추구하는 ITP 교육프로그램을 참조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있다고 그의 논

IV. 자아초월 교육프로그램

ITP의 자아초월 교육 프로그램의 특징은 다음의 4가지 영역, 전인적 인간학습 강조, 경험적 학습에 대한 강조, 지성에 대한 확장된 의미와 앎의 방식, 자아초월적 연구조사방법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우리는 이 각각의 영역들에 대한 강조와 이해를 통해서 ITP가 추구하는 교육이 바로 불교교육이 지향하는 목표와 얼마나 많이 일치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1. 전인적 인간학습 강조

자아초월 교육프로그램이 어떻게 전인적 인간학습을 강조하는지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자아초월 심리학에 대한 정의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레조이와 샤피로(Lajoie & Shapiro)는 1969년부터 1991년까지의 문헌에서 나타난 자아초월 심리학에 대한 40개의 정의를 검토한 다음 이들의 정의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는 5개의 핵심적인 주제들을 발견했다: 식의 상태(states of consciousness), 개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궁극적 잠재력(one's highest or ultimate potential), 에고나 개인적 자아 너머의(going beyond ego or personal self), 초월(transcendence), 영성(spirituality).¹³⁾ 왈쉬와 보간(Walsh and Vaughan)은 자아 또는 정체감이 인류, 삶, 정신, 또는 우주와 같은 보다 넓은 측면들로 확장되는 자아초월적 경험에 대한 연구를 강조했다.¹⁴⁾ 한편 윌리엄 브로드는 자아초월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개인, 사회, 수행이 자신들의 영역을 확대하고, 정체감(전형적인 자기중심적 모드를 넘어서는 존재 방식과 작용방식을 포함), 발달과 변화, 식의 조건, 앎의 방식, 가치, 그리고 붕사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보다 포괄적인 방식이다. 자아초월은 또한 우리의 존재, 행위, 사고방식에 대한 영적 측면들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¹⁵⁾

그러므로 자아초월 교육은 당연히 위에서 정의된 자아초월의 의미, 특질들을 개인 안에서 발견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실제로 교육을 통해서 끄집어내고 이끌어주는 것이라

문에 밝히고 있다.

13) Lajoie, D. H., & Shapiro, S. I., "Definitions of transpersonal psychology: The first twenty-three years", *Journal of Transpersonal Psychology*, 24, 1992, p.4.

14) Walsh, R., & Vaughan, F., "On transpersonal definitions", *Journal of Transpersonal Psychology*, 25, 1993, p.4.

15) Braud, William, "Educating the "More" in Holistic Transpersonal Higher Education: A 30 Year Perspective on the Approach of the Institute of Transpersonal Psychology", *The Journal of Transpersonal Psychology*, Vol. 38, No. 2, 2006, p.5.

할 수 있겠다. 로버트 프레이저(Frager Robert)는 자아초월교육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자아초월 교육은 보다 높은 의식상태의 발달과 연구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고, 인간의 삶의 본질적 측면으로서의 영적 물음에 대한 관심을 강조한다고 했다. 또 자아초월 교육은 앎과 진리의 발견을 위한 헌신을 강조하고 가치, 의미, 목적에 대한 물음, 주관적 경험과 대인관계에 대한 가치,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있어서 개방성과 비권위적, 비도그마적인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녀는 또한 자아초월 교육은 특정한 존재상태에 대한 직관적 앎과 인간경험에 대한 가장 깊은 통찰을 확인하는 지식이 과학적, 종교적, 합리적, 직관적이 됨으로서 지식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¹⁶⁾

윌리엄 브로드스는 이와 같은 자아초월과 자아초월 교육에 대한 진술들을 토대로, 자아초월 심리학의 이상, 가치, 목적을 실천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ITP 교육 프로그램은 다원론적 인식론, 즉 전인적 인간학습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ITP 교육은 자아초월에 직면한 학생들을 돕는 첫 단계로 앎과 학습에는 추론과 논쟁적인 지식과 배타적인 방식 외에도 타당한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ITP의 자아초월 교육모델의 핵심은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영적성장을 통합하는 전인적 존재로서의 균형적인 발달을 강조하는 데 있다. 즉 ITP모델은 학생들이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영적 수준에서 사람들과 관계하고 그들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심리학적 이론과 기법을 중요시하면서도 교수 또는 치료자의 존재 자체와 의식의 상태를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ITP 교육은 학생들이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성장의 일부로 여겨지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을 마치는 것이 학습을 완성했다는 의미보다는 앞으로의 발달을 위한 기초로 이해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1975년에 설립된 ITP는 처음에는 신체, 정서, 마음, 영성의 4영역이 균형있게 훈련되어 질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만들었다. 그러다가 뒤에는 집단관계와 창조적 표현을 강조하는 두 영역이 추가되었다. 그래서 ITP 교육모델은 신체적, 정서적, 지적, 영성적, 집단관계적, 창조적 표현의 6가지 영역의 학습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생태심리학(생태적 자각)과 다양성(다양한 존재방식에 대한 이해)의 두 영역이 추가되었다. 즉 앎, 존재, 행동의 중다모드(multiple modes)를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인적 학습방식이다.

이와 같은 ITP의 전인적 학습방식은 신구의(身口意) 삼업수행을 강조하는 전통적 불교교육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ITP 교육은 신체적(身), 창조적 표현(口), 지적·정서적(意), 영성적(깨달음) 수행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시스템이다. 뿐만 아니라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인식한 생태적 자각과 글로벌 시대의 다양성을 인식하

16) Frager, Robert, "A proposed model for a graduate program in Transpersonal Psychology", *Journal of Transpersonal Psychology*, 6, 1974, pp.1-5.

는 교육이 추가되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시대의 변화와 필요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역동적인 교육모델이다.

2. 경험적 학습에 대한 강조

윌리엄은 전인적 학습의 많은 요소들은 본질적으로 경험적이라고 말한다. 그는 또 경험적 학습은 깊이 살아있고 즉각적이고 내재적인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자아초월 프로그램은 경험적 요소와 지적 요소 모두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둘의 조합은 자신과 타인, 세상에 대한 보다 깊고 완전한 이해와 감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로저 베콘(Roger Bacon, 1268/1928)은 지식은 추론과 경험의 두 가지 모드에 의해서 습득되는데 어떤 것도 경험이 없이 충분하게 알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적 경험이 있을 때 개인의 마음은 분명해지고 완전한 진리의 빛 안에 켜 수 있다고 했다. 또 윌리엄 제임스(1890/ 1950)는 느낌, 정서, 감각을 수단으로 해서 습득한 지식과 소위 표상적 지식이라 불리는 생각, 개념, 판단을 수단으로 습득한 그 무엇에 관한 지식을 구분했다. 후자는 타인에게 전달될 수 있는 지식이고 전자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전달되어질 수 없다고 한다.

네크쉬반디(Naqshbandi)수피 전통에는 3종류 지식형태가 있다: (1)대상에 대한 묘사-과일에 대한 아이디어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단어들에서 볼 수 있음; (2)대상에 대한 느낌-과일을 보고 느끼고 냄새 맡을 수 있을 때; (3)대상과의 지각적 연결-과일을 취해서 맛보고 먹고 물입될 때. 이 세 가지 인지는 쉬넥(Schneck, 1980)에 의해서 다시 보다 기술적인 언어로 묘사될 수 있다: (1) 어떤 지식-저기에 하나의 과일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과 같이 지식에 의해서 온다; (2) 확신의 눈-내면의 눈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감각처럼 작용하지만 대상과 보다 깊이 관련되어 있다; (3)완전한 진리-진리와 하나가 되는 경험.

윌리엄 브로드스 이와 같은 삶의 형태들 외에도 애정, 자비, 사랑을 통한 삶이 더 추가되어야만 한다고 했다. 즉 알려지는 존재와 알려져 가는 존재를 통해서, 직접적인 삶과 직관을 통해서, 공감적 공명과 감정이입을 통해서, 그리고 알지 못함을 통해서 아는 삶이 지식의 종류에 더 추가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ITP 모델이 그와 같이 다양한 삶의 방식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경험적 학습에는 우리들의 삶에 대한 직접적,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감사와 이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다.

3. 교육과 지성에 대한 확장된 의미

오늘날 대부분의 고등교육은 지적개발만을 강조하고 지성에 대한 좁은 의미만을 적용

시킨다. 그러나 원래 초기 그리스교육은 그와는 반대로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읽기, 쓰기, 시, 체육, 수학, 철학, 과학 등 전 범위를 포함하는 전인적 인간을 교육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초기 그리스는 지성을 훨씬 더 폭넓은 의미로 이해했다.¹⁷⁾ 지성은 마음(mind)보다는 영적(spiritual)인 의미로 쓰여 졌으며 한 존재의 가장 깊은 핵심을 포함했었다. 지성을 통해서 개인은 직접적 이해와 지각을 수단으로 인성의 가장 높은 기능, 사물의 내적 본질이나 원리들을 알 수 있었다.¹⁸⁾ 이처럼 지성은 논쟁적, 개념적 논리적 기능과는 구분되었다.

오늘날에는 일반적, 학문적 영역에서 지성의 의미가 좁아지고 거꾸로 가서 합리적, 분석적, 논쟁적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인간존재의 경험보다는 컴퓨터에 의한 작업을 더 인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ITP교육은 전인적 경험적 학습, 그리고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강조를 통해서 교육과 지성을 확장시키고 보다 포괄적, 통합적인 교육방식을 추구한다.¹⁹⁾

4. 자아초월 연구방법

자아초월 연구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민감성과 뉘앙스를 연구방법에 포함시킨다. 자아초월 연구에서 연구자는 연구주제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풍부하게 기술함으로써 연구의 완성도를 올리고 연구대상 전체를 자신의 전존재로 직면한다. 연구자는 보다 근원적이고 경험적인 자세로 연구주제를 대할 뿐만 아니라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통합, 소통, 발견하는데 복합적인 삶의 모드를 사용한다.

복합적인 삶의 모드는 우리들에게 친숙한 좌반구적, 이론적, 합리적, 선형적, 분석적, 언어적 연구기술뿐만 아니라 자주 강조되지 않고 있지만 동일하게 중요한 보완적, 우반구적, 경험적, 신체바탕, 감각바탕, 직관적, 상상적, 전인적 기법과 기술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자아초월 연구자는 연구프로젝트를 행함에 있어서 마음챙김, 변별, 자비, 모든 영역에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아초월적, 심리영성적 기술과 수련을 적용한다. 연구자는 모든 연구단계에서 의도-설정(intention-setting), 주의-초점(attention-focusing), 정신신체의 평온(bodymind quieting), 광범위하고 뉘앙스적 비전, 오디션, 자기수용, 운동감각, 심상, 시각화, 상상, 직지(direct knowing), 직관, 공감적 확인, 놀이, 꿈부화(dream incubation), 능동적 상상 등의 부가적인 기법을 통해서 무의식적인 자료나 과정들을 연구한다.²⁰⁾

자아초월 연구자는 관심 있는 주제들을 탐색하기 위해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또는

17) Braud William, p.140.

18) 위의 글, 121쪽.

19) 위의 글, 140쪽.

20) 위의 글, 141쪽.

이 둘을 결합한 연구 설계를 사용한다.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가 자아초월 심리학, 일반 심리학, 자연, 사회, 인문과학들내에서 사용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인간학, 표현예술, 그리고 고대, 현대의 위대한 철학, 지혜, 영적 전통들의 누적된 지식과 방법들도 사용한다. 자아초월 연구자는 자신이 원하는 새로운 정보를 얻는데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연구에 개입된 모든 이들의 잠재적인 변화에도 관심을 갖는다. 자아초월 연구에서는 연구자 자신이 가장 중요한 도구다. 특히 질적 연구방법이 채택되면 연구자의 경험, 태도가 연구프로젝트의 성공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²¹⁾

V. 자아초월 교육의 근본원리 적용과 불교교육

1. 자아초월 교육의 근본원리와 불교교육

자아초월 교육의 근본원리와 실천에서 가장 두드러진 측면을 윌리엄 브로드는 다음의 6가지로 요약했다.

(1)학생들의 경험적 학습을 촉진시키고 심리영성적 성장과 변화를 지지하는데 강한 주안점을 둔다; (2)자아초월 내용과 자아초월 접근법을 강조한다; (3)위대한 영성과 지혜, 철학적 전통들을 정식 심리학, 또는 형이상학적 체계로 인정하고 존중한다; (4) 전인적, 자아초월적, 그리고 영성적 기술과 훈련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방법으로 전향하고 지능을 강조하는 획일적 앎의 방식이 아닌 복합적, 포괄적인 앎의 방식을 강조한다; (5) 자아초월의 원리와 훈련방식을 개인에게만 적용하지 않고 그 개인이 소속한 소집단, 대집단, 글로벌사회, 인간계를 넘어서 우주적 세계로 확장해서 적용한다; (6) 연구조사, 전문적 출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의 교육과 실질적인 봉사를 통해서, 그리고 개인적 삶과 자아초월, 영성적 특질의 내재화를 통해서 자아초월 심리학의 영역을 증진시킨다.²²⁾

여기서 잠깐,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아초월 교육의 근본원리를 불교교육의 근본원리라고 가정해 보자. 자아초월 대신에 불교교육이라는 말을 넣고 불교교육의 근본원리를 위의 6가지로 요약해서 제시한다고 했을 때 특별히 반대하거나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을 발견하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뭔가 더 첨가해야 할 그 무엇을 발견할 수가 없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불교교육은 궁극적 깨달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자아초월 교육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하고 싶어한다면 서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간화선의

21) 위의 글, 142쪽.

22) 위의 글, 142-143쪽.

위기와 관련된 논의들을 심각하게 다시 읽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자아초월 교육의 근본원리는 불교교육이 지향하는 바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생각이다.

2. ITP 프로그램의 근본원리와 커리큘럼의 적용

그러면 이제 앞에서 제시한 6가지 자아초월 교육의 근본원리가 ITP 교육 프로그램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살펴보자. 윌리엄 브로드스 ITP프로그램이 커리큘럼에 적용하고 있는 원리를 다음의 7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1) 학생들의 개인적 성장과 변화

자아의 작용과 관련된 작업들(self-work)에 초점을 맞춘다. 즉 자아의 성장, 발달, 그리고 변화에 주안점을 두고 경험적 체험을 강조한다. 각 교과목의 학습자료를 개인적 성장과 발달, 변화에 적용시키고 통합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학습을 유도한다. 또 연구논문, 과제 등의 목적은 연구논문에 참가하는 피험자, 연구자 자신, 논문을 읽는 독자들, 연구와 관련된 해당영역, 크게는 사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의 변화와 성장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다.

2) 학문영역으로서의 자아초월 심리학의 성숙함과 고유함

전통 심리학보다는 자아초월적으로 관련된 영역, 방법, 발견을 강조한다. 그리고 심리학에서 다루는 전통적인 주제들과 관련된 분야를 자아초월 심리학에서도 연구의 주제로 다룬다. 그러나 전통심리학에서 연구하는 방식과는 달리 자아초월 심리학은 마음챙김과 같은 명상법을 연구방법에 포함시킨다. 뿐만 아니라 마음챙김, 자비, 통찰과 같은 특질들을 자아초월의 핵심적 내용으로 채택하고 이들의 발달과 차이점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다.

3) 삶의 방식으로서 가슴과 지식을 통한 인식들

자아초월에서의 교과목 과정들은 자아초월, 영성적, 전인적 삶의 방식들이 연구기법으로 도입된다. 또 시각예술, 춤, 이야기하기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통합적인 창조적 표현이 자아초월 교육과 그룹 활동에 도입된다.

4) 세계의 영성적, 종교적, 철학적 전통들의 지혜심리학

기존의 전통 심리학은 종교적 영성적 전통들을 연구주제에서 제외하거나 적어도 주된 연구대상으로 취급하거나 관심을 가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아초월 교육은 토착신앙, 동양, 서양의 종교들과, 형이상학적 체계들을 핵심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이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5) 대인관계, 공동체, 글로벌시스템으로서 자아초월 심리학의 확장

자아초월의 원리들에 대한 연구조사, 이론, 적용은 4가지 적용분야 또는 맥락으로 일어난다 - 개인, 가족과 같은 소그룹, 조직과 같은 대그룹, 글로벌 공동체/생태/인간계너머.

6) 학생, 교수, 스텝을 위한 폭넓고 협동적인 학습환경

교육, 커리큘럼의 목적, 관리스타일이 시간과 함께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개선하도록 학습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계속적으로 변화, 개선될 수 있도록 학생, 교수, 스텝의 창조성과 통합성을 격려하고 지지한다. 그러한 목적에서 학생들은 연구조사 그룹과 글로벌세미나에서 교수, 지도교수와 협동한다.

7) 자아초월 원리를 세계에 봉사하기 위해서 적용

자아초월 실습은 일차적 영역과 이차적 영역의 두 종류로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일차적 영역은 학문적 발행물과 대중적이지 않는 분야다. 이차적 영역은 보다 대중적인 간행물과 워크샵을 포함해서 자아초월 원리를 실용적으로 적용하고 대중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성장을 돕는 진보적인 영역이다.

위에서 제시된 자아초월 교육원리가 적용되는 7가지 방식은 불교교육이 적용하고자 하는 것과 아주 상통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첫 번째 항목에서 학생들의 성장과 변화를 지향하는 자아초월 교육은 학생들이 연구논문을 쓰는데 있어서도 그 원리가 적용된다는 사실은 매우 인상적이다. 자아의 변화나 체험과는 무관하게 이론적, 도그마적 논의가 아니라 논문을 쓰는 과정이 바로 연구자 자신의 인격적 변화와 성장의 과정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이론에 치우친 논문이 아니라 이론과 실천이 하나로 통합되고 체험으로 녹아진다는 의미다. 그러기 때문에 논문을 읽는 독자들 또한 그 논문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인격적 변화와 성장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두 번째 항목과 세 번째 항목 역시 불교교육 원리를 적용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즉 머리만이 아니라 머리와 가슴을 함께 사용하는 앎의 방식과 자각훈련, 통찰, 자비 등의 특질을 강조하는 점은 바로 우리 불교교육이 중요하게 다루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리고 타종교와 전통에 대한 개방적 태도(네 번째 항목), 자신만의 수행이 아니라 사회와 자연, 모든 존재들과의 유기적, 연기적 관계를 중요시(다섯 번째 항목)하고, 상호 협동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훈련하는 학습환경(여섯 번째 항목)을 만들어가는 것도 바로 불교교육이 지향하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일곱 번째 항목에서 세계에 봉사하려는 목적에서 자아초월 원리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불교교육, 깨달음의 수행이 꿈꾸는 궁극적 목적이고 회향이다.

VI. 자아초월 교육효과의 평가와 불교교육

1. 불교교육 효과에 대한 합리적 평가의 필요성

불교공부는 통상적으로 흔히 알고 있는 공부와는 달리 이론과 실천이 반복적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머리로 하는 이론적 앎과 몸으로 하는 실천적 앎이 하나가 되어 가슴에서 만나는 마음공부라고 했다. 그러므로 마음공부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 잣대 또한 일반 학습평가 방식과는 당연히 달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달라야 한다는 그 사실을 공감하는 사람은 많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왜 달라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일에 관심을 두는 이는 흔하지 않는 것 같다.²³⁾

물론 불교교육, 특히 선수행 전통에는 범거량, 선문답으로 불리는 일종의 마음공부평가 방법이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평가방법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의 문제가 심각할 뿐더러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마음공부도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의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평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마음공부를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다. 특히 평가의 기준이 공부의 방향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평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대학입시의 시험출제 방향이 학교공부의 내용과 방향을 좌우하듯이 불교의 마음공부 또한 평가의 기준이 바로 공부와 수행의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아초월 교육효과를 평가하는 방법론이 불교교육 평가에 도입된다면 불교교육의 효율성, 대중성, 실용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아초월 교육이 궁극적으로 불교교육과 매우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종교가 아닌 과학으로 인정되어지는 것은 바로 훈련방법, 교육방법이 과학성, 합리성, 실용성, 객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2. 자아초월 교육효과의 질적평가

자아초월 평가 실습과목이 학생들의 자아초월 경험과 심리 영성적 성장, 발달과 관련된 특질,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서 1995년에 도입되었다. 자아초월 평가실습 프로젝트는 다음의 영역들이나 또는 관련된 특질들을 평가한다: 자아실현, 자아초월, 초월적 자아개념 또는 정체감, 개방성, 공동연대성, 수용, 변화, 기분과 신체자각, 신체적 앎, 환경적 자각, 영성,

23) <서광스님의 치유적 불교읽기>, 《법보신문》, 1082호, 2011년 1월 26일자 <http://beopbo.com/news/view.html?category=118§ion=93&no=64410> 참고.

가치, 마음챙김, 변별, 자비, 차이에 대한 이해, 개인적 성장, 통합, 개별화, 전환적 변화.

한편 윌리엄 브로드는 자아초월 실습프로젝트가 강조하지 않는 부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즉 자아초월 실습 프로젝트는 전형적인 학문적 성과나 성취를 평가하지 않으며 내용적인 지식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와 같은 학문적 목적은 특정한 교과목을 통해서 보다 관습적으로 평가된다. 실습 프로젝트는 성격평가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결핍, 또는 심리적 기능의 결핍이나 의학적 모델에서 도출된 정신병리와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그것 보다는 심리영성적 건강, 웰빙, 성장에 강조를 둔다.

그런데 윌리엄은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 즉 요즘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있는 긍정심리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간의 긍정적, 건강한 측면들과 자아초월에서 강조하는 건강, 성장, 웰빙의 측면들의 차이점이다. 긍정심리학은 대부분 인간의 자아(ego)내에서의 건강한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지 초월적 자아, 심리영성적 건강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윌리엄이 강조하는 긍정심리학과 자아초월 심리학의 차이점을 보면 자아초월 심리학이 얼마나 불교 심리학과 닮은꼴인가를 우리는 새삼 확인하게 된다.

3. 평가의 역할과 기능

전통적 평가는 의학 또는 병리학 중심 모델에서 나왔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평가는 자아초월 심리학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믿음 태도와 같은 특질보다는 이론과 기법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자아초월과 영성에 관련된 내용이나 이론들은 표준화된 평가와 해석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다.²⁴⁾ 그 결과 자아초월 심리학자들은 자아초월평가 유형을 고안했다. 그들은 자아초월 평가를 자아초월 수행자와 내담자의 비이원적 상태조망, 내담자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 내담자의 성장과 자각의 발달,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에서 협동적 작업과 전문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활동으로 정의했다. 그와 같이 내담자에 대한 이해를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자아초월 수행자는 체계적인 방식으로 자아초월 이론에 의지하고(예를 들면 표준화된 자아초월 측정도구 사용을 통해서), 평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자신의 잠재적 편견을 검증한다.

샤피로(Shapiro)는 평가의 역할을 변화의 여행이라고 기술했다. 평가는 개인이 어떤 전환적 과정에 있는가를 가리켜준다. 스스로의 평가든 타인에 의한 평가든 관계없이 평가는 개인의 삶, 존재, 또는 영성적 수행이 어디를 거쳐서 왔고, 현재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공평한 목적적, 증인적 묘사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평가

24) Friedman, H. L., & MacDonald, D. A, "Toward a working definition of transpersonal assessment", *Journal of Transpersonal Psychology*, 29, 1997.

는 개인이 하고 있는 여행의 본질,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평가형태가 사용되어질 수 있다. 샤피로는 자기관찰과 같은 평가는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재유형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평가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공포, 회피, 숨김, 책임거부), 심리영성적 여행에서 얼마나 멀리 왔는지,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한 유용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또 비일상적 경험들에 대한 피드백은 자신의 자아초월 경험이 병리적이지는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효과적 개입으로 작용할 수 있다.²⁵⁾

다양한 영성적 전통에서 이루어지는 자아초월 교육평가는 개인의 특정한 능력의 우열을 가리는 거친 판단이 아니다. 그것은 개인이 어떻게 자신의 생각, 감정에 반응하는지, 어떻게 공간에 접근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에너지를 쓰는지, 어떻게 시각화와 상상을 사용하는지를 알게 하는 특정한 방법을 제공한다. 또 평가는 우리가 그러한 방법들이 효율적인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평가는 우리가 선택한 영성적 길을 가는데 어떻게 진전이 있어왔는지를 알려줄 수 있다.

4. 자아초월 평가의 6가지 측면

윌리엄은 학생의 질, 특징, 변화, 패턴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6가지 방식을 자아초월 교육방식으로 제안했다. 그런데 첫 번째 방식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들이 다소 전문적인 질적 통계적 방식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본 논의에서는 생략하고 첫 번째 내용만 소개하고자 한다.

ITP의 커리큘럼들은 ITP가 강조하는 6분야, 즉 신체적, 정서적, 지적, 영성적, 공동체 관계, 창조적 표현 영역에서 학생들의 자각경험과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되어진다. 그러므로 각 교과목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교과목의 학습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이 6가지 측면을 기준으로 한다. 또 크게는 개인적 측면과 전문적 측면으로 구분해서 평가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개인적 측면에서 얼마나 신체적, 정서적, 지적, 영적으로 성장, 변화할 수 있으며 또 공동체와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창조적 자기표현이 가능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또 전문적 측면에서는 자신이 관여하고 있는 직장이나 일을 하는데 그 수업이 얼마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적, 방법론적 기법을 제공해 주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25) Shapiro, D., "Judaism as a journey of transformation: Consciousness, behavior, and society", *Journal of Transpersonal Psychology*, 21.

Ⅶ. 결 론

과학이 지금처럼 우리 인간세상을 지배하기 이전 시대에는 종교가 신앙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과학이 지배하고 있는 지금의 세계는 과학이 신앙의 대상이다. 다시 말해서 현대 인들은 종교보다 과학을 더 믿는다. 그렇다고 불교교육이 반드시 과학화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불교가 과학적 방식, 과학적 용어를 차용해서 가르쳐야 할 필요성은 선택의 문제를 넘어선 현실적 요구다.

불교교육에 있어서 불교는 순수 진리와의 같은 것이다. 불교는 체·상·용(體相用)으로 말하면 체에 해당하고, 법신(法身), 화신(化身), 보신(報身)으로 말하면 법신에 속한다. 그러므로 불교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인연에 따라서 그 모습을 달리한다. 즉 철학적 사유가 지배적이던 시대에 불교는 철학으로 가장 많이 가르쳐졌고, 종교가 사회적 권위를 가졌던 시대에 불교는 종교의 형태로 가르쳐졌다. 그러니까 지금이 과학의 시대라면 불교는 다시 과학의 모습으로 가르쳐 질 것이라는 기대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체상용과 법신, 화신, 보신의 본질적인 가르침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만일 오늘의 불교가 그와 같은 현실의 원리, 연기의 이치를 외면한다면 불교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서 외면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불교는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화신불의 합당한 모습으로 나투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과학적 방식에 익숙한 현대인들의 눈에 불교는 보이지 않거나 매우 시대에 뒤떨어진 종교로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1970년 초, 심리학이 이미 대중화되었던 미국에서 티벳의 초감 트롱파 (Chögyam Trungpa Rinpoche)가 서양인들에게 불교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서양심리학의 용어를 빌어서 가르치는 것이 좋겠다고 확신하고 나로빠(Naropa)대학을 설립했다.²⁶⁾ 물론 그가 불교를 심리학의 용어와 방법론을 빌어서 가르쳐야 되겠다고 주장했던 또 다른 이유는 불교 자체가 마음에 관한 가르침이고 마음을 훈련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그야말로 동양심리학의 대표주자로서 완벽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개인적 견해이지만, 초감 트롱파 린포체는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 1842- 1910)가 당시 자신의 강의에 참가한 스리랑카출신 다르마파라(Dharmapala) 스님으로부터 불교에 대한 설명을 듣고는 앞으로 25년간 미국 심리학이 공부해야 할 것이 불교라고 선언한 이래 불교가 심리학의 영역에 뿌리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자아초월 심리학, 심리치료가 오늘날의 과학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26) Chogyam Trungpa, *The Sanity We Are Born With: A Buddhist Approach to Psychology*, (Boston: Shambhala, 2005).

불교교육이 반드시 자아초월 심리학의 용어나 교육방식을 참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리학이 대중화되고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므로 한국불교의 위기에 직면해서 한국불교의 대중화, 국제화로 그 타개책을 찾고자 하는 불교교육이 과학적, 객관적, 합리적 방법론을 도입하는 일은 불교 대중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불교교육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또 다른 측면은 어떻게 하면 자비심, 자애, 공감과 같은 능력을 촉진시키는 방법들을 불교교육에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교육함으로서 사회적 갈등과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그런데 ITP의 영성 교육 프로그램은 바로 자비, 사랑과 같은 인간정신의 발달과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09년 10월 8일 미국 워싱턴에서는 달라이 라마를 중심으로 교육자, 과학자, 그리고 명상수행자들 사이에 21세기의 글로벌 시민교육에 대한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들은 인지적, 학구적 학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재의 편협한 교육체계를 몸, 가슴, 정신 영역으로 확대하는 전인적 교육으로 전환함으로써 건강한 마음을 배양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자 했다.²⁷⁾ 한국불교 또한 진정으로 국제화 대중화를 원한다면 보다 개방적으로 교육, 과학, 철학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과 개방적이고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불교 교육의 과학화, 객관화를 모색하는 일환으로 자아초월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탐색해 보았다. 왜냐하면 자아초월 교육은 서양심리학과 동양심리학을 통합하고, 불교적 수행과 가르침을 연구하고 실천하는데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해 온 가장 대표적인 과학의 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참고로 앞으로 자아초월 교육 프로그램과 평가방식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교교육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활용되어 질 수 있는지 보다 많은 후속 연구와 논의들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27) <http://www.mindandlife.org/pdfs/ml.09.winter.newsletter.pdf> 참고.

참고문헌

- 김응철. 「포교와 신행 구태를 벗어라」 『불교평론』 42호, 2010.
- 미산스님. 「한국불교를 어떻게 세계화할 것인가?」 『불교평론』 37호, 2005.
- 박성배. 「간화선 수행전통과 현대사회」 『보조사상』 제25집, 2006.
- 유승무. 「신자유주의의세계화, 한국사회의변화, 그리고 한국불교」 『불교학 연구회 하계워크숍』 2008. <http://blog.naver.com/ashuwini/80121603819> 참고.
- 종호스님. 「미국의 간화선 수행」 『보조사상』 제25집, 2006.
- Bacon, R.. *The Opus Majus of Roger Bacon* (2 vols.) (R. B. Burke, Tran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28 (Original work written 1268). In W. Braud (2006).
- Braud, William. “Educating the “More” in Holistic Transpersonal Higher Education: A 30+ Year Perspective on the Approach of the Institute of Transpersonal Psychology”, *The Journal of Transpersonal Psychology*, Vol. 38, No. 2, 2006.
- Fager, R.. “A proposed model for a graduate program in Transpersonal Psychology”, *Journal of Transpersonal Psychology*, 6, 1974.
- Friedman, H. L., & MacDonald, D. A.. “Toward a working definition of transpersonal assessment”, *Journal of Transpersonal Psychology*, 29, 1997.
- James, W..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vol. 1). New York: Dover. 1950 (Original work published 1890). In W. Braud (2006).
- Lajoie, D. H., & Shapiro, S. I.. “Definitions of transpersonal psychology: The first twenty-three years”, *Journal of Transpersonal Psychology*, 24, 1992.
- Shapiro, D.. “Judaism as a journey of transformation: Consciousness, behavior, and society”, *Journal of Transpersonal Psychology*, 21, 1989.
- Underhill, E.. *The essentials of mysticism and other essays*. New York: E. P. Dutton & Co., 1960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20). In W. Braud(2006).
- Walsh, R., & Vaughan, F.. “On transpersonal definitions”, *Journal of Transpersonal Psychology*, 25, 1993.
- White, J.. *The meeting of science and spirit*. New York: Paragon House. 1990.
- Wilber, K.. “Spirituality and developmental lines: Are there stages?”, *Journal of Transpersonal Psychology*, 31, 1999.

원고접수 : 2011년 1월 21일 1차 심사 : 2월 1일 게재승인일 : 2월 13일

연구자소개 : 송영숙

① 전공 : 자아초월 심리학, 불교심리학, 선심리상담 · 치료 / 소속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② 관심영역 : 불교 심리학, 불교 심리상담 · 치료, 유식 심리학

③ 주요저서 : 『현대심리학으로 풀어본 유식 30송』, 『현대심리학으로 풀어본 대승기신론』, 『문제는 항상 부모에게 있다』, 『한영불교사전』

④ E-mail : tosnim@gmail.com

Abstract

Exploring the Educational System for Korean Buddhism

Song, Yungsook

Dongguk University

This article explores the future direction of Korean Buddhist education, believing that there is a fundamental crisis in Korean Seon Buddhism, which is a kernel of the larger Korean Buddhist community. This article attempts to answer such questions as the possible changes that might benefit Korean Buddhism and education reform of Buddhist practitioners and followers. It tries to find an answer to the question regarding what kind of character and abilities the education system might foster in Korean monks and nuns. This article explores one possible answer to the question regarding the kind of nuns and monks to be fostered and the reasons why this is important. It is part of the effort to strengthen the weakest area in the current system of Korean Buddhism.

In regard to the kind of character and abilities Buddhist education might best foster, along with an approach which might prove to be the most fruitful in this areas, this article will introduce the perspective developed by William Braud (2006), who adopts a transpersonal approach to the whole person. The transpersonal education program that William Braud introduces in his article is the educational system of Institute of Transpersonal Psychology (ITP) located in the state of California in the United States. The educational system of ITP looks at the religious and spiritual aspects of human nature through the study of the objective, rational, and scientific literature in these areas in masters and doctoral level courses.

This article examines the commonalities found in the path to enlightenment elaborated by Korean Buddhism and the spirituality emphasized by transpersonal psychology.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characteristics, fundamental principles and their applications, and assessment of educational effects of transpersonal approach, this article explores an alternative direction for Korean Buddhism as it struggles to establish its popular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Key words: Buddhist Education, Transpersonal Education, Whole-person Education, Spiritual Education, Educational System of Korean Buddhism